

‘보호자’가 되는 소명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우선되는 차원으로 모든 인간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차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보여 준 대로
 모든 피조물, 창조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보호에 맡겨져 있고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선물의 보호자가 됩시다!
 피조물의 ‘보호자’, 자연 안에 새겨진 하느님 계획의 보호자,
 인간의 보호자와 자연의 보호자가 되도록 합시다!

2013.03.19. 성 요셉 대축일에 거행된 로마 주교 즉위 미사 강론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전화 (055) 249-7021~3

웹사이트 <http://samok.cathms.kr>

이메일 samok2@cathm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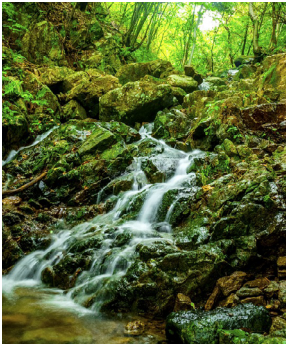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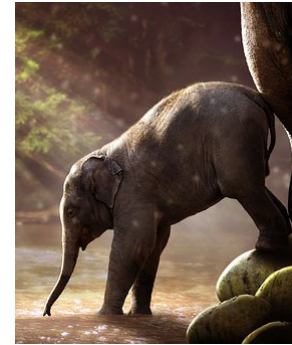
공동의 집을 위한
 환경에 관한 회칙
 와 함께 하는
 사순묵상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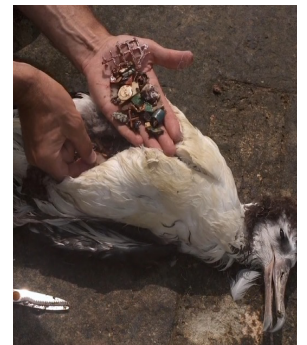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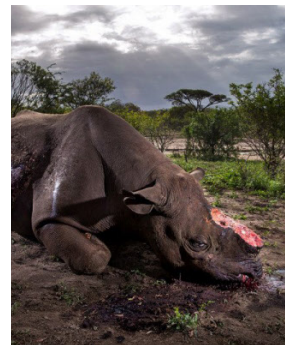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사진출처: 왼쪽부터 Pixabay, 위키백과, 전남신문, 한국경제, Pixabay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찬미받으소서』 160항



사진출처: 왼쪽부터 내셔널지오그래픽, Pixabay, 한국일보, 내셔널지오그래픽, 내셔널지오그래픽, 위키트리

사순시기 묵상집을 발간하며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

창세기에 소개된 에덴동산 이야기(창세 2,5-25)는 ‘천국’(paradise)을 상상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을 일구고 돌보는 사명을 왜곡한 결과, 자연은 파괴되고 많은 피조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하느님과 인류, 모든 피조물의 조화가 깨어지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찬미받으소서』 66항 참조)

우리는 이 죄의 결과를 영화 <알바트로스>의 한 장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묵상집 p.48) 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알바트로스의 처참한 모습을 통해 감독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시대의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변혁하여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사목국에서는 올해 사순시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환경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질서를 회복하여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며 구원의 삶입니다. 사순시기 묵상집과 함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은혜로운 사순시기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
(2코린 6,2)

사목국장 이원태 신부

2019 『찬미받으소서』와 함께 하는 사순시기 묵상집 안내

- **[사순시기 묵상집]** 은 『찬미받으소서』의 주요 부분을 읽도록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 **[오른편]**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에서 발행한 『보시니 좋았다』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환경·생명 십계명에 근거하여 해당 계명에 따른 읽을거리를 수록하였습니다.
- **[생명의 말씀]** 그날의 복음말씀 구절을 하루 동안 묵상합니다.
- **[실천합시다]** 환경과 생명을 위한 실천을 수록하였습니다.
- **[환경 십자가의 길]** 파괴된 환경을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 **[한걸음 더]** 환경 관련 사이트와 책자를 수록하였습니다.
- 『찬미받으소서』와 읽을거리로 수록한 인용 글의 일부 내용은 자연스러운 전개와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 요약하였습니다.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최초의 생태환경 회칙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교도권 문헌이면서, 회칙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교황이 주제 선정부터 집필, 발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생태문제를 핵심주제로 다룬 최초의 사회회칙**이라는 점에서 가톨릭사회교리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이 시대와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사태’가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앞선 문헌들은 ‘주교와 신부, 부제, 수도자와 모든 평신도에게 보내는’ 회칙(신앙의 빛)과 교황권고(복음의 기쁨)이었으나, 『찬미받으소서』는 **‘선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진 문서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모든 인간의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간 안에서의 정의를 강조한 것에서 나아가 생태정의를 강조하면서 인간끼리의 사랑만이 아니라 자연 사랑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핵심관심사

- **생태문제: 모든 인간의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염려**
- **발전문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환경을 위한 투신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투신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
생태적 불의와 사회적 불의가 별도로 취급되어선 안됨.(통합생태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두 가지 기본 관심사를 묶어주는 분(통합생태론의 모범).

회칙의 전개 : 현실직시 - 판단 - 행동

교황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래로 특징적인 ‘시대의 징표 신학’에 따른 3단계 전개방식 **‘보기 - 판단하기 - 행동하기’**를 따라 회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 어머니이신 땅을 공경하라 (땅)

땅은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자비로운 어머니,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어머니이다. 농약과 쓰레기, 아스팔트로 대지는 병들어 가고 있다. 더 이상 땅을 욕되게 하지 말자.

두 번째 계명 : 생명의 물을 사랑하라 (물)

지구의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되었고 물에서 성장하며 물에서 소멸한다. 물은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시작이다. 물 한 방울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구는 죽게 되고 우리 역시 살아남지 못한다.

세 번째 계명 : 자연에 부담을 주지 말라(에너지)

인간은 수만 년 동안 간직해 온 석유를 바닥내고, 지나친 풍요와 안락함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멸종시키고, 후손들이 살 공간마저 멸망시키고 있다. 꼭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사용해야 한다.

네 번째 계명 : 하늘을 더럽히지 말라 (공기)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많이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하느님 앞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간다. 더 빨리 살기 위해 만들어낸 자동차가 우리를 더 빨리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달리던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계명 : 생명의 밥상을 차려라(먹을거리)

먹는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다. 먹는 일이 축복이자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파종할 때부터 거둬들일 때까지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

여섯 번째 계명 : 우리의 몸을 존중하라 (건강)

우리 몸은 하느님의 성전이며 모든 피조물의 그림자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때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완성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계명 : 단순하고 소박하라 (주거)

오늘날 우리의 집은 화학물질과 소음, 전자파로 오염되고 지나치게 많은 가구와 전자제품들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기를 선택한다면 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쉼터가 될 것이다.

여덟 번째 계명 : 흔적을 남기지 말라 (쓰레기)

우리가 즉흥적으로 사고 버리는 것들, 편리함을 추구하여 사용하는 일회용품들이 땅과 물,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아홉 번째 계명 : 더불어 살라라 (공동체)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열 번째 계명 : 함께 가르치고 배워라 (교육과 문화)

교육이란 지식이 아닌 지혜를, 부유하게 사는 요령이 아닌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삶을 가르치고 삶을 배워가는 교사이며 학생으로 교육이란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할 위대한 소명이다.

『보시니 좋았다』,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참조.

3월 6일 재의 수요일

생명의 말씀: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마태 6,1)

찬미받으소서

1.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이 아름다운 찬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 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깔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2.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압받고 황폐해진 땅도 가장 버림받고 혹사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구는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로마 8,22)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창세 2,7 참조)

어머니이신 땅을 공경하라

실천합시다: 농부들이 생명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구입합니다.



황폐해진 땅©downtoearth

땅의 몰락

고대 900년 동안의 영화를 누린 마야 문명은 밀림을 베어 버린 후, 지속적인 곡물재배로 인한 토양의 침식으로 인해 멸망했다. 이스터 섬 또한 서기 900년 즈음, 원주민들이 처음 정착할 때만 해도 삼림이 우거진 풍성한 땅이었으나 원주민 씨족들 사이에 석상 세우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석상의 조각과 운반, 그리고 건립을 위해 무차별 삼림 파괴가 이루어져 문명이 붕괴했다. 오늘날에도 땅의 몰락으로 인한 인류의 몰락은 진행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수단,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일대의 초원지대가 모두 홍작과 기근, 그리고 홍수에 시달려 땅이 몰락하고 있다.

-『보시니 좋았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p.34

3월 16일 사순 제1주간 토요일

생명의 말씀: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 5,48)

IV.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44. 오늘날 우리는 많은 도시들이 불균형적이고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유독 가스 배출에 따른 오염뿐 아니라 도시의 혼잡, 열악한 교통, 시각 공해, 소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45. 일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특정 공간을 사유화하여 사람들이 매우 아름다운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인위적 평안을 누리하고자 외부를 차단한 이른바 '생태' 주거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46. 세계적 변화의 사회적 요인들 가운데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혁신, 사회적 소외, 에너지와 그 밖의 공공 서비스의 불평등한 분배와 소비, 사회적 붕괴, 폭력 증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 폭력의 증가, 마약 매매, 젊은이들의 마약 사용 증가, 정체성 상실이 있습니다.

47. 더 나아가 매체와 디지털 세계가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사람들이 현명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깊이 생각하며 넉넉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도록 영향을 행사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은 흥미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는 반면에, 인간관계에 매우 우울한 불만을 야기하거나 외로움이라는 해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연에 부담을 주지 말라

실천합시다: 백열전구가 사용하는 전기량의 3분의 1로 같은 밝기의 효과를 내는 절약형 형광등을 사용합니다.

전기는 어디에서 올까?

서울에서 쓰고 있는 전기의 97%는 다른 지역에서 끌어온 것!
전기생산을 위한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 그리고
초고압 송전탑의 위험과 환경 건강문제는 고스란히 지역의 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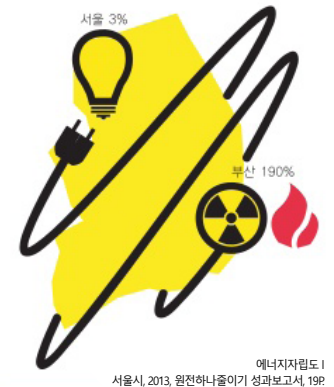
핵발전소는 미래가 아니다!

위험성
30년 사용한 핵폐기물을 10만 년 보관!

경제성
연료인 우라늄은 40년이면 고갈!

낭비성
유치 및 유지, 폐기물 처리까지 고비용!

지역파괴
생산과 송전, 원전 주변은 죽음의 땅!



죽음의 땅 경주 월성!

중수로 핵발전소 4기와 경수로 핵발전소 2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저준위 핵 쓰레기장이 있는 월성.
방사능이 들어간 물을 마시고,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방사능 공기로 호흡하며, 방사능 오줌을 누어야 하는
월성의 주민들. 모든 주민의 몸에서 삼중수소 검출.

-여성 환경연대 <http://ecofem.or.kr>



우주의 성모님, Sr. Bernadette Bostwick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으로 빛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나이다.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온유로 충만하나이다.
찬미받으소서!

환경 십자가의 길

들어가는 묵상

한 처음 인간과 동물, 나무와 풀, 산과 강 그리고 새와 물고기 다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세상은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창조사업에 동참하여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라고 인간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들의 욕심과 편리를 추구하는 사이에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은 한 처음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생명경시 풍조는 세상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삶의 터전인 땅과 자연이 파괴되고,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의 뜻을 되살려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져 함께 사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시작기도

아버지 하느님! 저희는 그동안
당신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어 나가기보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파괴해 왔고,
당신의 열이 담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되이 당신 앞에 통회하고,
모든 피조물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진출처: VOA

제1차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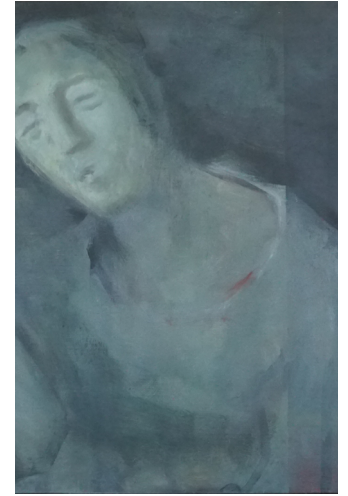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땅 또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한없이 내어 주었던 넉넉한 땅,
 받아들이고 삭혀 좋은 것만을 내어 주던 땅이,
 쓰레기 더미에 눌러 신음하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되돌려 줄 줄 모르는 사람들,
 거대한 욕심의 항아리를 채우다 지쳤습니다.
 풍요의 산실인 땅은,
 마침내 말라버린 어머니의 젖가슴이 되었습니다.

(잠깐 묵상한다) 영광송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마지막 농사꾼



제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농사꾼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힘 있고 배운 자들이 떠나버린 황량한 고향집,
 쓰러져 가는 울타리,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나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휘몰아친 태풍에 자식처럼 키우던 곡식 맥없이 쓰러지고,
 물밀듯이 밀려 온 수입농산물에 역장이 무너져 내리는 가슴,
 그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잠깐 묵상한다) 영광송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